

5. 자유-4. 평화를 빙니다.

시작 성가:

목적:

우리네 일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창조의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안내: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의혹 속에 갇혀, 기쁨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때가 있곤 합니다.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미묘하게도 자기 의혹에서 스스로는 빠져 나오지 못하곤 합니다. 마치 스스로는 눈을 가리고 보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다른 힘-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토마스의 의심 많은 흥정에 조건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수용과 만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에너지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의 내면에서 부활의 잠재 능력을 생활로 이끌어 내주게 해 줍니다.

성장한 우리들은 사회의 특성인 수많은 적대 행위와 파손의 모습을 대하게 된다 할지라도, 삶에서 우리가 갖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행복이 모든 것이 완전할 때나 고통이 없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는 새롭게 잉태되는 신비처럼 충만함과 기다림이 그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새롭게 잉태되는 창조의 힘-에너지가 삶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고통을 겪어내셨고, 그 결과로서 그 후 영광으로 오르신 것은 고통이 행복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징표이며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근심에 잠겨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요한 16,20)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우리가 본 것을 하느님의 일부분일 뿐이고, 세상의 괴로움은 바로 하느님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삶은 기쁨과 슬픔의 리듬으로 이어져 갑니다.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슬픔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을 느끼게 하시며 기쁨이 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간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직후, 혼란과 비탄에 쌓인 그들은 삶의 어떤 의욕도 목적도 없이 그저 그들이 가장 익숙해 있던 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나, 아무 것도 잡지 못하고 상심에 쌓여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은 이른 아침의 따스함이 자신들의 영혼의 밤이 지닌 어둠을 뚫고 퍼져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갈망을 깨우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있었었습니다. 그 갈망이 어둠이라면, 하느님의 음성은 빛입니다.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즉 신비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와 의식을 함께 하기로 한다면,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에 눌라지도 안을 것이며, 인생의 기쁨이 주는 감미로운 위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모범을 따라 생활 하고 추구한다면, 고통과 위로는 밀접하게 병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인류의 진화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예”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부활절이 없는 사순절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금을 정련하는 사람의 불 같으며, 표백하는 사람의 표백제와 같으리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사람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금과 은 같이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의로운 제물을 나 야훼께 바칠 수 있게 되리라.’ (말라 3, 2-3)

고요한 마음으로 자연 즉 땅과 바위, 흙과 풀에 귀를 기울이면, “나를 바라보세요.” 라는 그들의 ‘말씀’ 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 즉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단편들을 작은 것일지라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에 합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또는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의 에너지는 더욱 커집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사랑을 일으키고, 그 힘은 존재-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구할 은총 (갈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첫 과정: 바라봄-개인 성찰:

1. 나/우리부부가 토마스처럼 불안과 자기 의혹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리고 그 의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나?
2. 나/우리부부가 다가오는 고통을 껴안음으로 삶의 전체 또는 자기의 소명을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는가?
3. 나/우리부부가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이로써 삶이 기쁨으로 변한 경험이 있는가?
4. 나/우리부부에게 주님께서 나를 정화를 시키신 적이 있었다면?
5. 나/우리부부가 서로 “나를 바라보세요?” 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이 부름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둘째 과정: 들음-성경 말씀:

1.요한 20,24-29: 닫혀진 문으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기도안내: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삶을 느껴 보며 스쳐 지나가는 것을 영상화될 때까지 기다린다.

2.필립 4,4-9: 웃음과 눈물 속에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 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도안내: 말씀이 마음속에 흡수되도록 한다.

3.요한 21,1-18: 사랑의 소생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기도안내: 그리스도와 함께 호숫가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우리부부를 둘러 쌓고 있는 환경을 바라본다.

4.2코린 1,3-7: 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 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5.1코린 3,16-17: 나를 바라보시오.

여러 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 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 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기도안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 하루만 다시 현세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날로 돌아가서 하루를 바라보라.

셋째 과정: 알아차림(공개 나눔):

개인 성찰과 성경묵상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한 것을 나누고 공개 나눔의 질문을 이용하여 부부의 응답을 확인한다.

(공개 나눔을 위한 질문):

1. 오늘 새롭게 발견된 나/우리 부부의 모습은?
2.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이 나/우리 부부에게 바라시는(원하시는) 모습은?
3. 오늘 우리부부의 소명기도?

나눔과 듣기를 위한 기도